주사랑교회 소식

애국과 평화의 달

1. 환영 및 여는 찬양

주사랑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매 주일 낮 10시 45분부터 찬양과 경배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2. 성령강림주일 (오순절)

오늘은 성령강림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셨으며, 40일째 되는 날 승천하시고, 그 후 10일 후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제1의 위격, 성자 예수님은 제2의 위격, 성령님은 제3의 위격으로 삼위일체로써 하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3. 구역예배

2025년 6월 12일(목) 오전 10시 임명자 집사님 사업장 에마농 카페에서 진행합니다.
교회에서 오전 9시 출발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병목안로 31 에마농
(다음 모임 : 임명숙 집사)

4. 성도동정 (건강, 안전, 평안, 행복, 사명, 신앙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오현진(군복무), 이다남(노환), 박영대(노환), 임명순(손발목 인대 회복),
김혜숙 권사(디스크 협착증), 정현숙 권사(근무력증), 김옥화 집사(평안, 가족),
김강준 어린이(치유와 회복, 심리적 안정), 김주형(사업), 한효성(직장)
한인혜(직장) 정청재(공항장애, 믿음과 긍휼), 이광근(홈스쿨)
강선주(사업현장, 치과치료) 최귀순(백내장 수술 회복, 관절) 윤라겸(아들건강)

5. 2025년 6월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음력 5.6 ~ 6.7)

6/03(화)-한인혜 자매　6/04(수)-노승현 학생　6/10(화)-최서영 어린이
6/11(수)-이승빈 어린이　6/14(토)-전서윤 어린이　6/17(화)-임명순 사모
6/24(화)-이종빈 학생　6/27(금)-이재우 어린이

찾아오시는 길 / 매교역 2번 출구방향 50m

주일대표기도

6/08	박제연 집사
6/15	이광근 안수집사
6/22	임명자 집사
6/29	임명숙 집사
7/06	김혜숙 권사
7/13	정현숙 권사
7/20	박제연 집사

행사계획

날짜	행 사 내 용
06/08	성령강림주일(오순절)
	환경선교주일
06/15	삼위일체주일
06/22	통일주일 (교단 북한선교위원회)
	춘천소양교회 오후 4시
23~24	교단 북한선교위원회 부부수련회
	호텔 정관루 낮 12:30
06/29	특수전도주일
	선교헌신예배(마약퇴치의날6.26)
07/01	첫날맞이 월삭예배(성찬예식)
07/03	산상기도회 (안양 갈멜산기도원)
	지방회장순회예배(수원감찰)
07/06	맥추감사주일 (성찬예식)
07/13	교회교육주일 / 랄레아기도시작

주일 차량 운영

요일	운 행 안 내
주일	교회출발(9:45)►탑동(10:00)
	►화서동(10:10)►세류동(10:20)
	►교회(10:30)
귀가	교회출발(13:30)►탑동(13:40)
	►화서동(13:50)►동탄(14:20)
	►화성군 송산면 용포리(15:00)
평일	담임목사 연락(010-4724-3562)

예배안내

구 분	시 간
주일오전예배 1부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2부	낮 1:00
주일어린이예배	낮 1:00
토요학생부예배	오후 4:00
주일청년부예배	낮 1:30
수요저녁기도회	저녁 7:30
금요성령기도회	저녁 7:30
새벽기도회(월~토)	새벽 5:30
화요중보기도회	낮 2:00
목요구역예배	낮 2:00
Who made the world?	(상담 후 진행)
Thinkwise(마인드맵)	(상담 후 진행)
쉐 마 학 당	(상담 후 진행)

주사랑 8권 23호 | 2025년 6월 8일
창립 2017.11.25 | 성령강림주일 / 환경선교주일

기 독 교 대한성결교회 **주사랑교회**

Jusarang Korea Evangelical Holiness Church

주사랑교회 사명선언

① 오직 예수만을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공동체로써
②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③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④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와 가정을 세워가고
⑤ 실력과 영성을 겸비한 다음 세대를 리더로 세우며
⑥ 불신자들에게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며
⑦ 민족복음화와 통일선교에 이바지하며
⑧ 열방과 세계에 복음으로 선교하는 교회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Welcome to Jesus Love Church

주사랑교회를 찾아주신 형제, 자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담임목사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 일 오 전 예 배

오전 11시 00분 (성령강림주일 / 환경선교주일) 인도:집례자

※ 묵 도	사도행전 2:17~21	인 도 자
※ 찬 송 가	찬 183장 (빈 들에 마른 풀 같이)	다 같 이
※ 사도신경		다 같 이
※ 주기도문	찬 635장	다 같 이
성시교독	No.135 성령 강림(1)	인도자/회중
찬 송 가	찬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다 같 이
대표기도		박제연 집사 (교회학교 교육부장)
※ 성경봉독	요엘 2:28~32 (구 1272)	박제연 집사
광 고		인 도 자
말씀인도	만민을 위하여 약속된 성령	담임목사
십 계 명	출 20:1~17 / 마 22:37~40	인도자/회중
봉헌찬송	찬 185장 (헌금위원 : 한성결 학생)	다 같 이
※ 축 도		담임목사

(※ 표시는 경건한 마음으로 일어섭니다)

양기로운 예물 (헌금은 들어오시면서 헌금함에 미리 넣어주세요)

십 일 조 : 임명순
주정헌금 : 강선주 김혜숙 문재효 박제연 오동영·임명숙 이광근 임명순 임명자 한승훈
감사헌금 : 강선주 박태성 이광근·박제연(자녀) 전복순 정현숙(심방) 한승훈·임명순 김주형(애플트리디자인)
월삭감사 : 김혜숙 한성결 한은총 한승훈·임명순 한희락
교회학교 : 이재우 이재희 이재아 임명순 한성결 한희락
구역헌금 : 김혜숙 박제연 임명순
선교헌금 : 문동진·임명자
후원헌금 : 농협 (주사랑교회) 351-1002-2982-63

통일선교비전기도회

오후 1:00 ····· 한승훈 목사
대표기도 ····· 맡 은 이
성경봉독 마태복음 24:1~14 (신 41)
말씀제목 New Hope(뉴 호프, 새 소망)
말씀인도 ····· 한승훈 목사

수요 기도회

오후 7:30 ····· 한승훈 목사
성경봉독 사도행전 2:1~13 (신 188)
말씀제목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여

가정·구역예배(목)

오후 2:00 ····· 아가을 권찰
성경봉독 열왕기하 3:13~27 (구 562)
대표기도 ····· 박제연 집사
말씀제목 아둔한 통치자의 시대일지라도

심야기도회(금)

오후 7:30 ····· 한승훈 목사
성경봉독 사도행전 2:37~42 (신 190)
말씀제목 회개와 세례와 성령

새벽 기도회

새벽5:30 로마서강해(월~금)

8일(일)	롬 7:21~25	그리스도인의 영적 갈등
9일(월)	롬 8:1~2	생명의 성령의 법
10일(화)	롬 8:3~11	그리스도의 사람아란
11일(수)	롬 8:12~17	양자의 영으로써 성령의 일
12일(목)	롬 8:18~25	모든 피조물의 구원과 성령
13일(금)	롬 8:26~30	성화를 도우시는 성령

(단, 주일은 개인별 자율 묵상)

국내선교(오주교훈흠스쿨)

이재우·재하 재아

훈·쿨링
성경적 가정
복음적 다음세대

해외선교(모로코)

함베드로 선교사
안사랑 선교사

모로코
캠퍼션 파송
소리 단이

북한선교(북한선교위원회)

교단총회 행존부서

북한선교정책수립
북한성결교회재건
북한이탈주민정착
통일선교학교

기타 기관 선교

오픈도어즈선교회
모퉁이돌선교회
한국장애인선교회
한국북한선교연구소
한국성결신문
한국장애우고용마을

⑦ 새 성전에서 담을 쌓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겔 42:20)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 마당의 길이가 오백 척이며 너비가 오백 척이라 그 담은 ( )하는 것이더라

⑧ 범죄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심판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인가요?(겔 43:2~5)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 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 )이 ( )을 통하여 ( )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 )이 ( )에 가득하더라

⑨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성전을 통해 하나님은 형식이 아닌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이것으로 표현하라고 하셨는데 무엇인가요? (겔 43:27)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팔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 )와 ( )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 )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⑩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하신 성전을 이제는 결단코 떠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그 은혜를 무엇으로 증명하셨나요? (겔 44:1~2)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돌아오시니 ( )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 )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 )

⑪ 하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작업을 하셨는데 대표적인 두 가지의 일은 무엇일까요? (겔 44:9~10)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 )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 )도 그릇 행하여 그 ( )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답안을 작성한 주보의 앞면에 이름을 기록하시고,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봉헌시간에 축복기도와, 1년 치를 모아 제본해 해드립니다)

성경공부 : 2025-23주 / 에스겔 39 ~ 44장

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가운데서도 침략자인 곡의 멸망을 선포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겔 39:7)

내가 내 ( )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 알게 하여 다시는 내 ( )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②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모든 죗값을 치르고 마치는 날에 어떤 열심을 가지고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셨나요?(겔 39:25)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 )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 )을 베풀지라

③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지 25년 후, 하나님은 새 성전에 대한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 주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겔 40:4)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네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 ) 귀로 ( ) 네 마음으로 ( )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네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 ) 하더라

④ 에스겔이 본 새 성전의 환성은 솔로몬의 성전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런데 성전의 지성소를 둘러쌓고 있는 3층으로 된 30개의 골방을 지성소와 완전히 분리하기 위해 지성소의 벽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어떤 구조로 설계하셨나요? (겔 41:6)

골방은 삼 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서른이라 그 삼면 골방이 성전 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 )

⑤ 성전의 사방에 그려진 천사들의 모습으로 인간보다 지혜롭고, 사자보다 용감하다는 의미로 승리와 영광을 상징하는 그림은 무엇인가요? (겔 41:18~19)

널판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으며 각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 )의 얼굴이라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 )의 얼굴이라

⑥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성전의 방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나요? (겔 42:13)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 )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 )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 )이니 이는 ( )이라

신앙의 향기 : 모로코 기도편지 (함베드로, 안사랑 선교사)

쌀람. 모두 다 평안하신지요? 한국의 어려움이 고스란히 이곳 북부아프리카까지 전해지는 듯 합니다. 나라를 위해 더 손 모아야하고 어느 하나 기도 없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없음을 더욱 느낍니다. 나라의 안정과 하나님이 보우하사 아버지의 통치가 임하는 대한민국이 되어 주님 오실 때까지 허락하신 시간에 더 큰 사명 감당하는 나라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도 평안히 눕기도 생활하기도 하지만, 가볍게 느껴지지 않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90일 관광비자로 이 땅에서의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자를 연장하기 위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짧은 시간 내로 다녀올 수 있는 곳을 다녀옵니다.

지난 편지들에 모든 상황들을 보내지 않지만 많은 에피소드 중 저희의 한 사례를 나눕니다. 비자여행으로 옆 나라에 저가항공 새벽비행기를 타게 되었습니다. 비행기 출발시간 20분전이 되어서야 비행기 결항을 알려주는데, 인원이 많이 차지 않아 예정된 결항이었을 거라 합니다. 이 나라의 일하는 방식과 어쩔 수 없는 부분임을 그저 받아들여야합니다. 수고스럽고 번거롭고 타당하지 않은 일의 연속을 거의 매일 마주하게 됩니다. 공의와 정의는 찾아보기 어렵고 무법과 거침과 소매치기로 인해 가벼운 외출에도 약간의 긴장을 늦출 수 없고, 거대한 자본주의와 이슬람의 제국 앞에 살아가고 있음을 깊이 자각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감사한 것은 그리 크게 어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모로코가 좋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달에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아래층에서 잦은 항의를 하고 올라와서 심한 화를 냈습니다. 아이들은 무서워하고 숨었습니다. 그래도 미안하다 말하며, 한국음식으로 대접하고 싶다고 식사하자고 잘 이야기하고 마음 풀고 왔지만 저희 부부 마음이 고되게 느껴진 날이 있었습니다. 사랑하고 품고 싶은데 잘 되지 않고 쉽지 않습니다. 외국인을 환대하며 초대하는 이전의 이슬람 문화와는 달리 정말 도시적이고 더 개인적인 것으로 가고 있는 모로코를 마주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며칠 지나서 다시 찾아온 할머니는 얼굴은 굳어있으나 모로코 디저트를 나누어주시며 손을 내밀어주니, 서로 그간의 어려움이 순식간에 녹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은 맛있는 음식을 만들면 조금씩이라도 주고받고 있는데, 전해줄때 아이들도 서로 자기가 주고오고 싶어 합니다. 이 땅에서 이들처럼 함께 아이들을 키워가고 살아가는 기쁨, 이들의 삶처럼 함께 어우러져가는 기쁨이 저희가 정안에 있습니다. 일반적이고 평범한 것 하나를 해결해가야 할 때 너무 많은 에너지가 쓰인다고 느낄 때가 많으나, 그럼에도 이 땅에서의 에피소드를 새로움과 당연함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는 순간들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아버지 마음을 저절로 알아가는 은혜 속에 있습니다. 이들과 우리의 다름을 느끼고, 거짓됨 속에서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의문을 갖고, 때로는 자기를 과도한 관심으로 불편하게 표현하는 친구가 천국에 갈 수 없음에 알 때 아이에게 설명을 깊이 하지 않아도 순간 멈춰버린 눈과 마음으로 오가는 충격과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이곳에서 섣부르고 급한 열매를 맺기 바라보기보다 아버지가 바라보게 하시는 순간들에 마음 드려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않았다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저희도 그 모습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그때마다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는 가정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이 땅이 예배하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북아프리카에서 피에르&사랑 드림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구역예배가 어려우신 성도님들은 가정예배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예배진행	인도자
사도신경		다 같 이
찬 송 가	찬 182장	다 같 이
대표기도		박제연 집사
성경봉독	왕하 3:13~27	윤 독
말씀인도	아둔한 왕의 시대일지라도	맡 은 이
합심기도		다 같 이
헌금기도	찬 294장	맡 은 이
주기도문		다 같 이

BC	오늘 본문의 연표	Bible
853	아람과의 전쟁과 아합의 죽음	왕상 22:1~40
	여호사밧 왕의 통치 이야기	왕상 22:41~50
	북이스라엘 아하시야의 등극	왕상 22:51~53
850	아하시야의 배반의 조짐	왕하 1:1~12
852	북이스라엘 아하시야의 죽음	왕하 1:13~18
	엘리야 승천과 엘리사 승계	왕하 2:1~14
	엘리사의 사역 시작	왕하 2:15~25
852	아합의 아들 요람(여호람) 등극	왕하 3:1~12

■ 들어가는 말

이스라엘 연합군은 물이 떨어져 모압과의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전쟁에서 패배할 위기에 빠졌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여호사밧의 제안으로 왕들 앞에 소환된 엘리사는 여호와가 물도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모압을 이기게 하실 것이라 예언합니다. 이와 같은 일은 엘리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고 말함으로써 오직 하나님의 권능만이 이스라엘의 승리임을 진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와 같은 언약은 모두 성취됩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모압의 왕 메사는 급기야 맏아들을 번제로 바치면서까지 이겨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는 백성을 통해 어떤 선한 일을 행하고 계실까요?

첫째, 여호와를 섬기는 한 사람의 영향력을 통해 생명을 살립니다(13~17).

여호와의 뜻을 구하러 온 세 왕 앞에서 선지자 엘리사는 연합군에게 승리를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밝힙니다. 모압 군과 싸우기도 전에 식수 고갈 사태를 만난 북이스라엘 연합군의 세 왕은 여호사밧의 제안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엘리사를 찾게 됩니다(12).

그런데 여호람이 나타났을 때, 선지자 엘리사의 태도는 냉랭합니다. 엘리사는 여호람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선지자 엘리사는 자신과 여호람 왕과 무슨 상관이 있냐며, 아합과 이세벨의 선지자들에게나 가보라고 말합니다(13). 오히려 식수 부족은 여호와께서 세 왕을 모압에게 넘기려는 계획이라고 설명합니다(13). 선지자 엘리사는 여호람을 상대해 주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사밧 왕의 체면을 봐주기 위함 때문이지, 바알숭배자 여호람을 위해서가 아니라고 면박을 줍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유다 여호사밧 왕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로 하고 수금 찬양단을 요청합니다. 수금 연주가 진행되는 동안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임합니다. 하나님은 골짜기에 웅덩이를 많이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골짜기는 에돔과 모압의 경계인 세렛 강을 가리킵니다. 이 명령은 고지대의 물이 대량으로 방출되어 낮은 골짜기를 채울 때 물이 다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이 골짜기가 지금 멀랐지만 이곳에 물이 가득 차 군인과 가축이 마실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결국 응답의 은혜를 겸비한 여호사밧 왕, 한 사람으로 말미암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한 사람이 모두를 살리는 통로가 되어줍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은 모두를 살리는 통로가 될 수도 있고,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상대방을 통해 어떤 유익을 얻고 있는가 나누고 축복해 봅시다.

둘째,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은혜를 강물처럼 흘러보내주십니다(18~21).

엘리사가 요청한 수금 찬양단이 연주를 시작하자 하나님의 응답이 엘리사에게 임합니다. 곧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고 명령하면서, 비록 바람과 비를 보지 못할지라도 골짜기에 물이 가득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는 자연 현상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는 이적이자 전쟁의 승리를 약속하시는 표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모압에게 치명타를 안겨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이스라엘의 승리로 모압의 모든 견고한 성읍과 아름다운 성읍을 차지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모압의 모든 삶의 터전이 황폐케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둘째 모든 좋은 나무를 벨 것이라 했는데, 이는 유실수나 제목의 소실을 가져올 것이고 양식과 건축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는 뜻입니다. 셋째, 모든 샘을 메울 것이라고 했는데, 모압 주민과 육축의 생명의 원입인 샘과 우물을 막거나 흙으로 매우는 행위는 질투, 적대감, 보복을 표출합니다. 이는 모압 땅에 물이 없게 될 것이며 모압의 모든 성읍은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넷째, 모든 좋은 밭을 돌로 헐 것입니다. '헐다'는 말은 '고통을 주다', '괴롭게 하다'라는 의미로 밭에 돌을 쌓아 황폐하게 만들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물이 에돔 쪽에서 흘러나와 골짜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는 비가 내렸다는 말이 아니라 고지대에 모인 이슬이 급류를 만들어 흘러내렸음을 말합니다(시 124:4~5). 그런데 '물이 흘러내린 시간'을 아침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소제를 드릴 때'라고 설명합니다(20). 소제와 전제는 제사장들이 매일 아침저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상번제에 포함된 제사를 말합니다. 이 제사는 하나님의 임재와 백성과의 교제를 상징합니다(출 29:41~43). 상징적인 시간에 물이 공급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자기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임을 일깨워줍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세렛 강을 물로 채움으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인애가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는 예배의 경험이 있다면 서로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비록 반쪽짜리 신앙일지라도 더 온전한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22~27).

모압 사람들은 세 나라 연합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전쟁을 준비합니다. 경계를 서던 이들은 물에 태양이 떠오르는 모습을 보며 적진에 피비린내 나는 내분이 일어났다고 착각합니다. 물에 비친 태양이 떠오르는 모습을 보며 피로 착각했던 것이며, 내분으로 발생한 피가 강물처럼 흐른다고 오판을 한 것입니다. 결국 경계를 늦추고 나와 처참히 패배하고 맙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모압 왕은 맏아들을 인신 제물로 바치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 어려움을 돌파하려고 했고, 격려한 모압 군대의 저항으로 연합군이 퇴각합니다. 결국 여호람은 모압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반쪽짜리 승리에 만족하고 돌아갑니다. 반쪽 신앙의 소유자는 온전한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으며 오히려 모자람을 책망 받게 됩니다.

■ 결론

하나님을 무시하는 미련한 통치자가 통치하는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로 자기 백성을 돌보십니다.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압과 전쟁을 치르며 아집으로 가득한 자는 듣고 보고 경험해도 여전히 배우지 못합니다. 요즘 비성서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릇된 정책과 법안들이 끊임없이 계류되고 있습니다. 패악한 세상을 공의와 정의로 이끄는 것은 사람의 노력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불의한 세상과 다투는 것보다 먼저 붙들어야 할 것은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헌신하는 방법을 취해야 합니다. 불의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갑시다.